



# 공인된 육계사육 표준 계약서 필요성 제기

- 현 사육계약서 69%가 불공정하다 평가 -

◇ 정리 / 김동진 기자  
(dj@poultry.or.kr)

**본**고는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육계인대회에서 행사에 참석한 육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계 계약사육 현황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게재한 것이다. 본 설문은 전국에서 모인 육계인(응답자 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국내 양계현황은 물론 최근의 육계 계약사육 실태를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내용을 통해 계약사육의 발전적인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본 설문은 일반사육농가와 계약사육농가들의 답변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유추해 볼 때 현재 일반사육농가들도 계약사육의 경험이 있거나 계약사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본 사례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계약사육농가만을 엄밀하게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육계인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 1. 육계사육 규모

이번 행사에서 설문에 답변을 준 77명의 육계 사육농가의 사육규모를 보면 평균 44,468수로 적게는 1만5천수부터 12만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중 3~4만수 미만인 38%(29개 농가)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며, 다음이 5~6만수 미만(13개 농가, 16%), 4~5만수 미만(11개 농가, 14%)으로 3~5만수를 사육하는 농가가 68%(53농가)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또한,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의 사육규모가 계약사육농가 보다 농가당 6,300수가 적은 41,839수로 나타났다.

## 2. 육계사육 형태

계약사육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사육이 40.3%(31개 농가), 계약사육 농가가 51.9%(40개 농가)로 나타났으며, 일반사육과 계약사육을 혼용하는 형태도 7.8%(6개 농가)로 나

타나 최근 사육실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3. 소득향상에 유리한 사육형태

**일반사육과 계약사육중 어느쪽이 소득향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일반사육이 66.2%, 계약사육이 33.8%로 일반사육이 계약사육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관련한 이번 질문은 직접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일반사육과 계약사육 중 어느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것인데, 일반사육농가와 계약사육농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들은 응답자중 87.1%가 일반사육이 소득향상에 유리하다고 답변을 한 반면, 계약사육 농가들은 50%만이 일반사육이 소득향상에 유리할 것이라 답변을 주어 계약사육에 참여할수록 계약사육이 일반사육보다 안전성과 수입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답변을 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아직까지는 육계업이 일반사육이 소득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금년도 육계 가격이 높게 유지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소득향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육형태

구분	일반사육(%)	계약사육(%)
전체	66.2	33.8
일반사육업자	87.1	12.9
계약사육업자	5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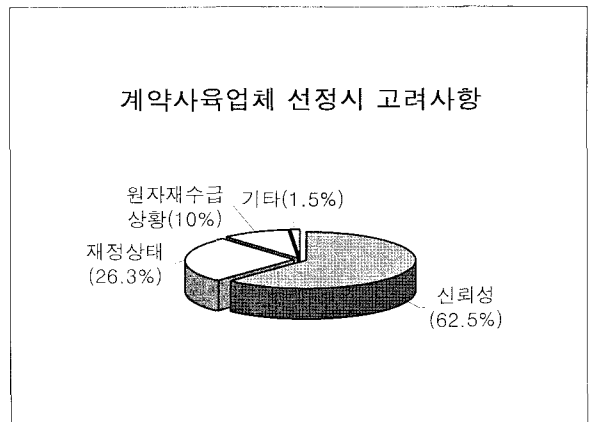
### 4. 육계사육 계약서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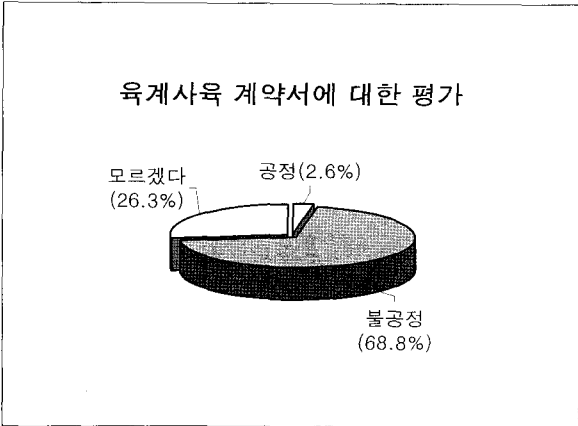
현재 각 회사별로 적용하고 있는 육계사육

**계약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하다는 답변이 2.6%,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68.8%,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26.3%로 공정하다는 답변은 불과 2.6%에 그친 반면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68.8%로 압도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육계사육계약서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이 계열화 사업이 올바르게 정착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특히 계약사육을 하는 40개 농가들의 답변만을 취합해 볼 경우 공정하다(5.3%), 불공정하다(76.3%), 모르겠다(23.7%)로 답변해 직접 육계 계약사육을 하면서도 76%에 가까운 사육농가들이 육계사육 계약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계약사육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계약사육 업체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미 계약사육을 하고 있거나 계약사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반사육농가들이 계약사육업체를 선정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약서 작성문제가 본회를 주축으로 완성단계에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묻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농가에서 공인된 육계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를 최대한 보완하여 공정하게 작성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완성단계에 있는 계약서를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히 다듬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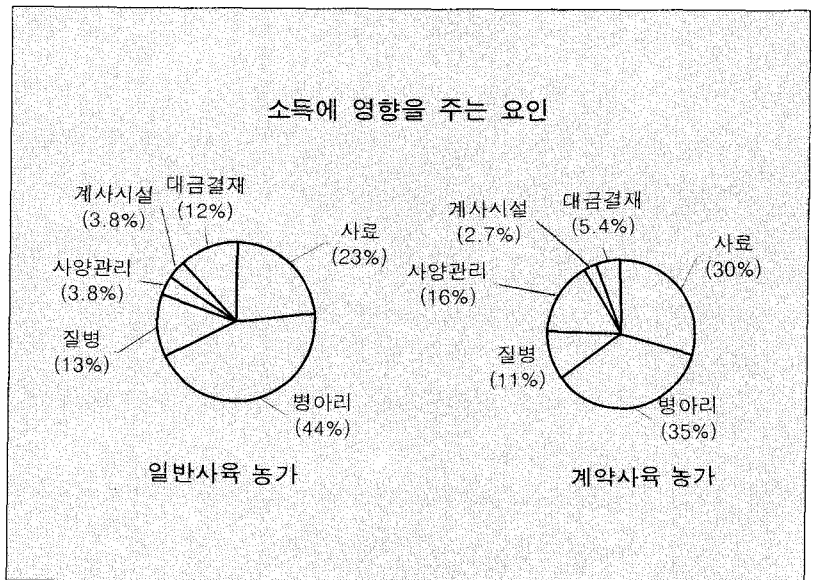
있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계열업체의 신뢰성이 62.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업체의 재정상태가 26.3%, 원자재 수급 상황이 10%, 기타가 1.5%로 집계되었다. 이 항목에서는 계열업체의 신뢰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나 입추 및 출하기일 준수, 문제발생시 책임있는 사후처리, 정해진 기일내의 결제 등이 업체 선정기준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육계사육에 있어서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병아리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료 27%, 질병 11%, 사양관리 8.3%, 대금지급 8.3%, 계사시설 3.1%로 나타나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보다 병아리의 품질이 생산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계열업체로부터 병아리를 받는 현 실정을 미루어

### 6. 공인된 육계표준계약서의 필요성

공인된 육계표준사육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하다가 93.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필요없다라는 답변은 6.49%로 5개 농가만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육계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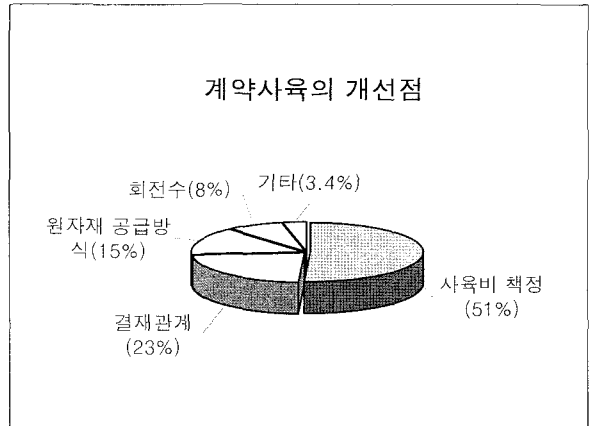
볼때 병아리를 잘 받고 못받는데에서 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계열업체 뿐 아니라 국내 육계산업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아직까지 종계장, 부화장을 통한 건강한 병아리 보급체계의 미흡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고로 순수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답변을 보면 병아리 44%, 사료 23%, 질병 13%, 대금지급 12%, 사양관리 3.8%, 계사시설 3.8%로 일반사육에서의 사료(30%), 사양관리(16%)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병아리(35%), 대금지급(5.4%) 보다는 높게 나타나 계약사육이 일반사육보다 병아리와 대금결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료와 사양관리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8.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

일부 계열주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실적이라 생각한다가 3.9%,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가 77%, 모르겠다가 19%로 나타나 일부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대평가가 아직까지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평가만을 고집하던 계열업체중에는 사양가들의 의견을 들어 절대평가제를 혼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계약사육농가들은 현실적이라는 답변이 5%, 비현실적이라는 답변이 75%,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20%로 전체적인 흐름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 9. 계약사육의 개선점

현재 계약사육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중복으로 물어본 질문에서는 사육비 책정이 5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결재관계(23%), 원자재 공급방식(15%), 회전수(8%), 기타(3.4%)로 나타났다.

일부 농가에서는 모든 면에서 모두 개선을 해야 하지만,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육성적, 연료비, 약품비 등 계절변화에 따른 사육비가 융통성 있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계약사육농가들은 일반사육농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결재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 10. 가장 적당한 회전수

육계사육에 있어서 1년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회전수를 묻는 질문에는 5회전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6회전 이상이 22%, 4회전이 12%, 3회전 이하가 1.3%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육농가와 계약사육농가별로 구분

하여 보면 일반사육농가들은 4~5회전이 93%를 차지하는 반면, 계약사육농가는 5~6회전 이상이 93%를 보임에 따라 계약사육농가들이 평균적으로 회전수를 늘려 생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반응을 토대로 회전수를 산출해 보면 평균 5.08회전으로 평균 5회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4만수 미만의 규모가 작은 농가들 보다 4만수 이상의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회전수를 늘려 사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11. 병아리 폐사시 사후 처리

**병아리가 폐사를 보이거나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계열업체의 반응**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떠넘긴다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서대로 처리해 준다가 23%, 무조건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5.2%, 경험이 없다가 17%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도 무조건 책임을 떠넘긴다가 58%, 계약서대로 처리해 준다가 30%, 무조건 50%씩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5%, 경험이 없다가 7.5%로 전체 결과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계약서 대로 처리해준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나 직접 계약사육을 하는 당사자들은 계약사육시 계열업체와의 신뢰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12. 결론

위 설문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면 농가당 국내 평균 사육수수는 45,000수로 과거보다 사육수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육계사육 형태는 일반사육과 계약사육의 비율이 44:56으로 계약사육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을 통해 대부분의 농가들이 각 회사별로 적용하고 있는 육계사육계약서에 불신을 갖고 있으며, 공정한 육계표준사육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어, 사육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조건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열업체와 사육자가 서로 불평이 없는 표준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완성된 계약서는 가능하다면 법제화시켜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소득면에 있어서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을 더욱 높여가는 노력이 전 업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병아리가 폐사를 보이거나 질병피해가 일어날때 대부분 농가피해로 일축하는 경향이 높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전 업계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을 했다는 평가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

